

〈韋敬天傳〉에 대하여

文 範 斗*

〈차 례〉

- | | |
|-----------------|------------|
| 1. 序 言 | 5. 作家意識 |
| 2. 作家問題 | 6. 小說史的 意義 |
| 3. 構成에 따른 展開樣相 | 7. 結 言 |
| 4. 主題具現의 樣式上 限界 | |

1. 序 言

본 작품은 林燦澤教授에 의해 발굴되어 소개되었다.¹⁾ 이 작품의 제목 밑에는 '權石洲製'라 기록되어 있어 石洲를 號로 하는 朝鮮朝 宣祖代의 문인 權韓(1569~1612)이 그 작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정작 林教授는 이 기록에 대해 회의를 표명하면서 석주의 작품일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명백한 기록을 부정하기까지는 고심찬 검증이 있었을 법하나 구체적인 자료에 의한 確證的 결론이 아닌 이상 재검토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 이에 鄭珉教授가 다양한 논거를 중심으로 林教授의 견해에 반론을 제기하였다.²⁾ 물론 이 경우는 원래의 기록을 사실대로 수용하고 그 작가로

*영남대학교 강사

1) 林燦澤, 傳奇小說의 愛情主題와 韋敬天傳, 《東洋學》第22輯,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92

2) 鄭珉, 韋敬天傳의 낭만적 悲劇性, 《韓國學論集》第24輯, 漢陽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94, pp. 283~289

서 석주로 보자는 것이다. 이후 다시 林教授의 견해에 찬동하는 朴熙秉教授의 논의까지 이어져³⁾ 본 작품의 작가문제는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작가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상의 논의들이 있었으나 본 작품이 〈周生傳〉이 창작되었던 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지어졌다는 점에서는 논자들의 견해는 일치하고 있다. 이 시대는 본격적인 소설형성기인만큼 〈위경천전〉의 발굴은 그만큼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여기에, 이 작품의 작가가 확정된다면 본 작품의 여러 소설적 속성들이 사적 맥락과 작가의 세계관 속에서 보다 명쾌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왕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작가문제를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어서 작품의 구성적 특징과 작가의식의 투사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해서 본 작품의 문학적 성과에 대해 이해를 갖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논의들의 최종적인 결론이 본 작품의 작가를 확정짓는 귀납적 성과로도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2. 作家問題

〈韋敬天傳〉은 《古談要覽》이라는 여러 유형의 작품을 모은 소설집에 첫 번째로 실려 있는 작품이라 하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목 밑에 붙어 있는 ‘權石洲製’는 작가가 石洲 權韓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애초에 李明善教授의 《朝鮮文學史》소설목록에 석주의 작품으로 〈주생전〉 외에 〈章敬天傳〉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경천전〉의 소재는 그동안 확인할 바 없어 失傳된 것으로 여겨져 왔다. 바로 이 〈위경천전〉이 목록상에 〈장경천전〉으로 표시된 작품의 원래의 것으로서, 제목의 글자풀이 유사한 까닭으로 목록작성시 誤記된 것으로 보인다.⁴⁾ 林教授는 이 〈위경천전〉을 발표하면서

3) 朴熙秉, 傳奇小說의 問題, 《韓國漢文學研究》第17輯, 韓國漢文學會, 1994, pp. 469~472

4) 李明善教授의 소설목록에 올라있는 〈章敬天傳〉은 《古談要覽》에 실려 있다고 했고 또 林教授의 〈韋敬天傳〉도 《고담요람》에 있는 것이라 했다. 즉 이명선교수의 목록은 바로 임교수의 이 〈고담요람〉(혹은 그 轉寫本)을 근거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런데 〈위경천전〉의 주인공은 唐代의 文士 韋應物의 후예라고 했으니 주인공이 韋氏인 것은 틀림이 없으며 결국 ‘韋’字가 ‘章’字와 글자모양이 비슷한 까닭으로 〈장경천전〉으로 잘못 전해온 것으로 보인다. 혹 〈章敬夫傳〉이라 전해진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林榮澤, 위의 책, p. 14, 鄭經, 위의 책, p. 281脚註 參照)

이미 명기된 기록을 부정하는 이유로 다음을 들고 있다. 즉, 民間雜書의 기록을 그대로 신빙하기도 어렵거니와, 〈주생전〉에 비해 삼입시의 수준이나 사건구성의 완성도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주생전〉의 작가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은 〈주생전〉을 읽고 자극을 받은 어느 無名文人이 지은 것이라고 결론지었다.⁵⁾

그러나 여기에 대해 鄭珉教授의 논점은 전혀 달랐다. 鄭教授가 〈위경천전〉의 작가는 작품의 기록대로 權石洲가 틀림이 없다고 결론짓고 있는 논거를 대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고담요람〉에는 〈雲英傳〉〈英英傳〉등 다른 작품도 함께 실려 있으나 〈위경천전〉만 작가가 밝혀져 있는 점으로 보아 필사자가 작가를 석주로 불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위경천전〉은 〈주생전〉과 창작원리나 의식 면에서 한 사람의 솜씨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는 본 작품을 後人의 모방작으로 보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나 그 개별성도 현저하여 일방적인 모방작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세째는 挿入詩도 〈위경천전〉은 〈주생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下手가 아니라는 점이다. 넷째, 문장 표현면이나 장면의 형상화나 사건 구성의 기교면에서도 〈위경천전〉은 결코 〈주생전〉에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鄭教授의 이런 견해에 대해 朴熙秉教授의 재반론이 이루어졌다.⁶⁾ 朴教授는 〈위경천전〉의 작품의 필치나 수법을 비롯한 정황증거들로 판단할 때 석주작일 가능성에 회의를 가진다고 하였다. 〈위경천전〉과 같은 작품의 경우는, 그 전과 과정의 출발에서부터 미상인 채였을 수도 있고, 또 작자의 이름이 전해지다가 탈락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전과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어찌다가 다른 이름으로 그 이름이 뒤바뀔 수도 있고, 혹은 무명씨의 작으로 전해오던 것을 누군가가 정확치 않는 소문이나 추정에 근거해 작자명을 새로 부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朴教授 자신으로서는 이 작품이 〈주생전〉과 비슷한 점이 있으므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권필의 작으로 오인된 게 아닐까 추측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위경천전〉의 작가문제는 어느 정도의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석주 當代의 여느 문헌에 혹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5) 林煥澤, 위의 책, p. 12.

6) 朴熙秉, 위의 책, 같은 곳

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외에 작가문제를 해결해 줄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한, 민간에서 두루 轉寫된 문헌의 기록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을 수만은 없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일단 작품에 작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것이 작가문제에 대한 가장 유력한 증거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작품자체의 내용에 특별히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할만 것이 없고, 작품을 석주의 문예적 식견이나 독서범위, 세계관과 직접적으로 대응시켜 밀접한 상관성을 지닌 것이 확인된다면 그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 경우는 <주생전>을 석주의 작으로, 또 <洪吉童傳>의 許筠의 작으로 확정하는 논리적 접근태도와 동일하다. 더구나 석주작에 반대하는 결정적 논거로 挿入詩의 수준 또는 작품의 필치나 수법과 같은 것에 의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⁷⁾ 鄭珉教授가 이미 작품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듯이 실제로 삽입시의 문학성이 전적으로 下品인 것 같지는 않다.⁸⁾ 그러한 부정적인 인상의 이유는 많은 경우 轉寫過程 중의 脫字나 誤字 등 轉寫者의 오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성상의 긴밀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나 필자가 생각컨대 오히려 이 부분이 본 작품의 창작시기를 어느 정도 劃定해 주는 동시에 석주문학의 개성적 창의를 나타내 주는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林燮澤教授는 <위경천전>이 어느 無名 文士의 손으로 씌여진 것이라고 하면서도 작품에 왜 權石洲로 명시되게 되었는 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無名の 작가가 이 작품을 지은 후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이미 傳奇小說 작가로 명성이 있는 석주의 이름을 빌어 쓴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이는 다른 쪽의 가능성도 타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 시대에 假托이라는 소설관행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때의 가탁은 실재는 이름을 밝힌 기록자 자신의 창작이지마는 어떤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나 작품을 단순히 옮겨 쓴 것으로 독자가 여기도록 기술한 경우를 말한다. <주생전>이나 <崔陟傳> 같은 작품의 가탁여부에 대한 논란이

7) 이러한 견해는 朴逸勇教授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는데(<傳奇小說의 문제 토론 요지>, 《韓國漢文學研究》第17輯, 韓國漢文學會, 1994, p. 476), 여기서 박일용교수는 박희병교수의 논의가 실증적인 입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창작수법과 같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비평적 감식안에 의한 추정이라는 데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8) 鄭珉, 위의 책, pp. 285-286.

그것이다. 이 경우는 실제로 기록된 내용이 가탁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록 전하는 내용이 순전한 서술자의 창작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지은 것으로 밝힘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서사적 장치가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위경천전〉의 경우도 이런 애정소설을 지은 것에 대해 비난받을 것을 염려했다면 굳이 남의 이름을 빌어 붙이지 않아도 그런 가탁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비난을 충분히 피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석주의 이름을 빌어 쓴 것이 오직 이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작가의 이름을 아예 빼버리고 無名の 작품으로 남겨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혹은 어느 작가가 이 작품을 지어두고 명망있는 석주의 이름에 얹어 독자에 대한 유인효과를 기대했다면 그 일말의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역시 문제가 있다. 당대의 소설창작이 아직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知己 間에 필사되어 돌려보는 정도였을 터인데 중국소설은 물론이고 《詩經》과 같은 經書까지 통람하였을 뿐만 아니라, 詩作에도自在한 능력을 갖춘 문사가 자기가 지은 작품을 비슷한 시기에 산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유포했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그 시대에는 정통 한문학의 문체에서 벗어나는 글을 권장할 단계는 아니었지만은 파격적이라 할만한 다양한 문체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金鰲新話》는 이미 그런 파격의 문장을 선호하는 문사들의 필독서로 인정된 것 같고 《企齋記異》나 〈柳淵傳〉이니 〈南宮先生傳〉이니 〈崔陟傳〉이니 〈주생전〉이니 하는 작품들이 實名을 달고 유행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위경천전〉 역시 이 시대에 지어졌다면 하등 남의 이름이 불허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소설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轉寫되는 과정에 그 내용이 〈주생전〉과 유사한 것에 연상되어 석주의 작으로 오인된 것일 것이라는 朴熙秉教授의 견해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앞서 朴教授가 제시한, 야담류의 전승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은 충분하다. 전파의 출발에서부터, 또는 전해지는 도중에 작가의 이름을 잃어버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그 덧붙혀진 이름이 하필 權石洲였겠는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원래부터 권석주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극복하기가 어려워진다. 작가를 모르는 소설작품에 轉寫者가 임의로 특정인의 이름을 붙일 수 없거니와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朴教授는 그 가능성으로 본 작

품이 〈주생전〉과 유사하기 때문에 전사자의 착오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는 좀 실제적인 측면으로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말하자면 그 착오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선 〈주생전〉이나 〈위경천전〉이 ‘~傳’ 형태의 소설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형태의 소설은 정통 한문문체상의 傳樣式에서 상당한 변개의 과정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인물의 일대기형식으로 전개된다. 물론 이 경우에는 중심인물인 주인공의 이름이 곧 작품제목이 된다. 따라서 내용을 안다는 것은 주인공의 이름을 포함해서 제목까지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말하자면 ‘~전’ 형태의 소설은 그 내용과 제목이 不可分離로 傳承者들의 기억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위경천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어떤 사람이 〈주생전〉의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 알고 있다는 것의 최소요건인 주인공에 관련된 사항, 특히 주인공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 된 제목까지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위경천전〉을 접한 사람이 이미 〈주생전〉을 읽은 경험이 있고 그 내용까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한다면 엄연히 〈위경천전〉이라는 작품이름이 붙어 있는데 별도로 〈주생전〉을 연상하여 〈주생전〉의 작가이름을 붙였겠는가 의심스럽다. 설사 〈위경천전〉이 작품제목까지 떨어져 나간 채로 전해졌다 하더라도 轉寫作業을 하는 사람이 그 작품의 주인공의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했을 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朴教授가 제시한 그런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겠다.

다음으로 석주의 독서범위 내에서 작가문제를 살펴볼 수도 있겠다. 우선 〈주생전〉에는 〈鶯鶯傳〉, 〈靈小玉傳〉과 《剪燈新話》의 〈翠翠傳〉, 《剪燈餘話》의 〈賈雲華還魂之記〉가 수용되고 있다. 그리고 문집 소재의 傳작품인 〈郭索傳〉에서 《金鰲新話》의 수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⁹⁾ 그런데 역시 〈위경천전〉의 작가도 《전등신화》와 《금오신화》의 읽고 이를 수용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위경천전〉의 작가 역시 중국 역대 傳奇小說을 두루 섭렵했고 그 구조와 미적 기조에 관해서도 각별한 식견을 갖춘 사람이다. 〈위경천전〉이 〈주생전〉을 읽은 무명인사에 의해 지어졌다고 하지마는 〈주생전〉만 읽고서는 위와 같은 식견을 갖추 수가 없음은 물론이다. 〈위경천전〉의

9) 석주가 〈곽삭전〉 장작시 〈龍宮赴宴錄〉을 참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金昌龍教授의 〈郭索傳研究〉(《東方學志》37·38 합병호, 1983, p. 149)를 참고할 수 있다.

작가가 〈주생전〉만을 읽고 국내외의 전기소설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춘 것이 아니라면 양 작품에 나타나는 독서범위의 동일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를 우연의 일치로 보는 것은 이 두 작품의 작가가 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비해 너무나 부자연스럽다.

작품의 구성적 완성도나 그 심미적 감동의 측면에서 〈위경천전〉은 아무래도 〈주생전〉보다 뒤떨어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작가의 작품이 완전히 그 예술적 재능의 영역에서 이해될 수 없을 정도로 벗어나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한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작품이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를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주생전〉은 애정만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고 서사적 자아의 漂流意識이라는 전체적인 주제에 애정이 주요 모티프로 기능한다. 〈위경천전〉 역시 애정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다시 작가의 處世가 세계의 보편적 질서와 가지는 교섭관계를 다루었다. 같은 애정문제를 다루면서도 여기에 관련된 두 작품의 문제의식은 애초에 다른 것이고 그 다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각각의 구성상의 특징을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주생전〉은 기존 소설 양식의 틀 속에 작가의 주제적 의도가 용이하게 구현되었지만 〈위경천전〉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즉 양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구성상의 완성도의 차이는 작가의 추구했던 각각의 문제의식이 양식적 범위 내에서 수용가능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졌는가에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비록 〈위경천전〉처럼 어느 정도의 한계를 지니면서 구성상의 완결성을 저해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주제의 참신성의 측면에서는 나름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러한 양식상의 破格으로 해서 소설사적 맥락 속에서 지니는 의미가 더욱 뚜렷해질 수도 있다. 석주로서는, 지금까지 보아온 그의 문예적 독창성을 고려하건데 기존의 양식을 준용하면서도 주제의 파격을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어느 한 측면만을 기준으로 두 작품의 의의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주생전〉의 작가로 석주를 지목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증거는 작품 전체에 관류하는 작가의 세계관이나 심미적 시각 등이었다. 〈위경천전〉도 역시 같은 관점으로 바라 볼 수가 있다. 비슷한 정신세계를 지닌 당대의 문사가 석주만은 아니었겠으나 그것을 적극 문학작품으로 형상화시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위경천전〉 역시 석주의 작가정신이 작품의 전체에 드러나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작가정신은 석주가 當年에 지녔던 독특

한 세계관적 지향에 관련된 것이다. 물론 이는 〈주생전〉에서도 나름의 독특한 형태로 구현되었고 한시작품에서도 두루 찾아볼 수 있다. 논의를 해가는 중에 자연히 밝혀지겠지만 이 점이 본 작품을 석주작으로 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構成에 따른 展開樣相

이미 앞선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본 작품은 《剪燈新話》와 《金鰲新話》의 일부 내용을 차용하고 있다.¹⁰⁾ 그러나 영향관계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 내용들은 본 작품의 독특하고 특징적인 구성적 인과관계로 묶어져 있어, 영향을 준 작품들과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작품세계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면 〈위경천전〉은 어떠한 구성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본 작품의 전반적 성격을 밝히는 데는 이 문제부터 접근해 가지 않을 수 없다. 작품의 구성을 주인공의 행위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의미에 따라 다음의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沒歷史的 放任과 愛情志向

〈위경천전〉의 전반부는 《剪燈新話》의 〈滕穆醉遊聚景園記〉와 〈鑑湖夜泛記〉, 그리고 《金鰲新話》의 〈醉遊浮碧亭記〉와 유사한 면이 있다. 모두 絶景에 勝遊하며 鬢놀이와 酬酌을 일삼다가 여인을 만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특히 〈취유부벽정기〉에서 볼 수 있는 작품배경의 哀傷的인 분위기나 남주 인공이 벗과 일삼는 酒宴은 〈위경천전〉과 가장 가깝다.¹¹⁾ 그러나 앞선 작품들의 남주인공의 湖上出遊는 여주인공과의 만남을 위한 분위기의 조장에 주로 기능하고 있으나 〈위경천전〉의 경우는 앞으로의 사건전개와 다층적인 의미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韋生은 唐나라 韋應物의 후예로서 詩名이 높았다고 했다. 壬辰年 暮春에 벗 張生과 더불어 長沙의 북쪽을 지나다가 景物에 興이 겨운 장생의 제안으로 岳州의 형승을 구경하기로 한다. 이들이 勝遊했던 곳은 長沙 북쪽 岳

10) 鄭珉, 위의 책, pp. 295-296.

11) 정민, 위의 책, pp. 296~298 參照

陽城 아래의 洞庭湖 上이었다. 작품의 배경을 이 곳으로 택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법하다. 이곳은 우선 舜임금이 蒼梧의 들판에서 죽었을 때 그의 두 부인인 娥皇과 女英이 몸을 던진 湘水와, 楚나라 三閭大夫인 屈原이 懷王과 襄王을 섬겼으나 조정간신들의 모함으로 축출되자 이를 비판해 자결했다고 하는 汨羅水를 끼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漢나라의 정론가인 賈議의 불우한 사처도 역력하다. 가의는 漢代 孝文帝의 大夫로 말군의 재능으로 博士로 입조한 후 일년만에 太中大夫에 올랐으나 이를 시기한 絳侯 등의 모해를 입어 長沙王의 太夫로 좌천된 인물이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불우를 겪었던 굴원을 애도하여 〈弔屈原賦〉를 남기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서두부의 작품배경은 정치적 불우객의 사적이 애상적인 비감을 환기시키는 분위기로 착색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 노닐면서도 두 사람의 태도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장생은 '나는 본래 慷慨한 사람이라. 눈으로 古人의 遺篇만 보더라도 오히려 눈물이 나오는데, 이제 직접 이 곳에 오고 보니 어찌 나의 회포를 금할 수 있으리오. 瓊漿의 좋은 술을 마시며 古今의 님을 불러 보리라.'¹²⁾라고 하여 절절한 역사적 상흔이 아롱진 洞庭湖畔에 感慨의 情을 부렸다. 장생은 동정호 주변에 전해 오는 忠節孤魂의 유적을 추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생은 이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장생의 태도에 대해 '이와 같은 찌꼬리 울고 꽃피는 좋은 시절에 다만 마땅히 취해 즐길 뿐이지 모름지기 옛 일을 조문하여 마음을 상함은 만나질의 즐거움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일 뿐일세'¹³⁾라고 하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즉 위생은 현실의 짐을 모두 벗어 버리고 음주자락하며 자연 속의 일취를 만끽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즉 장생은 분명한 역사적 현실적 인식 위에 서 있는 인물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현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여기서 장생의 역사인식은 우선 긍정적이지 않다. 굴원과 가의는 뛰어난 재능으로도 쓰이지 못하고 放逐되었던 인물들이다. 따라서 장생이 이처럼 역사에 부침한 인물들에 慷慨한 심사를 보탠 것은 현실의 부조리한 사회상황을 충분히 연상케 해 준다. 대신 위생

12) 僕本平生慷慨之士也 目及遺篇 尚且殫淚 今來此地 可堪余懷 欲飲瓊漿 招古今之魂

13) 如此鶯花佳節 但當醉歡而已 不須弔古傷心 空費半日之歡已

은 사회현실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일탈의 유혹을 맛보겠다고 하는 위인이다. 위생의 이런 태도는 이후 여주인공인 蘇淑芳과의 결연사건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 현실의 짐을 벗고 자연 속에 노닐며 일흥을 즐기는 것과 애정행위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위생의 방만한 일탈적 승유행위와 그로 이어지는 애정지향이 특별히 장생의 현실적 인식과 대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구성은, 위생의 행위가 일면의 정당성을 갖도록 하는 효과를 지닌다. 無常한 人生, 有限한 삶에서 한갓 동정호반의 전설로만 남은 옛 사람들의 자취가, 현실의 굴레를 벗고 주어진 순간을 즐기며 이름에 연연하지 않으려는 위생의 태도를 이해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한 편으로 여기서 장생의 태도로 대변되는 기존가치도 무시 못할 힘으로 위생의 일탈에 제약을 가해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② 普遍世界的 干涉과 愛情危機

위생의 방만한 일탈의지는 여주인공 蘇淑芳과의 만남으로 해서 애정의 추구로서 구체화되게 된다. 이들은 위생의 말대로 빼어난 경치를 벗삼아 노래부르고 술마시며 질탕히 놀다가 배 가운데서 잠이 들었다. 혼몽한 상태에서 위생이 먼저 잠을 깨었다. 혼자 배에서 내려 언덕 위를 거닐다가 문득 푸른 버들 사이에 하늘에 닿을 듯이 우뚝 솟아 있는 彫甍紫閣의 큰 집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집안의 화려한 모습에 취해 있다가 문이 열리는 바람에 오도가도 못하고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당황하여 이리저리 뜰을 거닐던 중 위생은 우연히 침소에 든 아리따운 여인—즉 蘇淑芳—을 발견하고는 마음을 억제치 못하고 그녀를 범하게 된다. 소속방은 처음 불시의 침입자에 놀라나 위생의 온화한 詞氣를 짐작하고 서로 가언을 맺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위생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勝遊時에 보였던 위생의 일흥은 문사의 시정을 돌우는 文遊쯤으로 수궁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예법과 통념에서 벗어난 남녀간의 자의적인 결연행위는 용이하게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위생에 대해 기존 사회의 가치체계라는 세계의 간섭이 제기된다. 그 구체적 인물은 張生이다. 장생은 위생의 소속방과의 前夜事를 듣고는 위생을 크게 나무라고 있다.

그대의 재주는 江左에 짝이 없으니, 金門에서 射策하고 玉署에서 文하
며, 몸을 세우고 이름을 날려 세상을 건져 백성을 편하게 함은 바로 평

생의 뜻이다. 相國의 문을 훔쳐 엿보아 망녕되이 私通의 율법을 범하고도, 녀을 잃어 깨닫지 못하고, 뜻을 함부로 하고 몸을 망녕되이 하여, 桑中의 醜聞을 끝내 가리기 어렵게 되면, 다만 辱이 어버이에 미칠 뿐 아니라 또한 禍가 집안에 까지 이어질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않으리오. 무릇 사람이 한 번 마음이 어그러지면 모든 일이 다 그르치게 되나니, 비록 뒤에 뉘우쳐 배꼽을 물어뜯는다 한들 어쩔 수 없을 것일세. 그대는 삼가 힘쓰라.

(子之奇才 江左無雙 射策金門 瑤文玉署 立身揚名 濟世安民 乃是平生之志也 儻窺相國之門 妄犯私通之律 迷魂不悟 縱意妄身 桑中醜說 終始難掩 則非但辱及君親 抑亦禍延高門 可不戒哉 凡人一念之差 萬事誤矣 雖有後悔 噬臍無及 唯子勉之)

여기에서 장생은 위생이 지녀야 할 그 시대 보편적인 가치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미 특출한 재주를 띠고 태어났으니 과거에 응해 玉堂에 오르고 濟世安民의 뜻을 펼치라는 것이다. 아녀자에惑하여 몸을 망령되이 하여 가문을 더럽히는 것은 그 신분세계의 보편적 통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이다.

위생은 장생의 이러한 논리에 반박하지 못한다. 장생은 자신의 이런 질책에도 위생이 그의 말에 순응치 않을 것을 알고 술을 강권하여 大醉하게 하고는 배를 저어 동정호를 벗어난다. 그 결과로 위생은 소속방과 결별하게 되고 깊은 相思의 情으로 마침내 병석에 눕는다. 그러나 이 이별이 단순히 장생에 의한 물리적인 이격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 거리상의 문제는 위생의 의지만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병석에 눕는 것은 위생의 방임적 애정행위가 장생에 의해 제기된 문제를 극복할만큼 정당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

相思得病 중의 남주인공을 구하는 인물은 그의 부모이다. 이 점은 〈이생 규장전〉의 내용과 동일하다. 양 작품 모두 부모가 병고에 신음하는 주인공의 병의 원인을 캐고는 상대방 主人公家와 혼인길을 트면서 득병의 원인이 제거되는 형식으로 문제는 해결된다. 이런 설정은 주인공이 겪는 문제가 가장 권위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에 의해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해결방식은 앞서 장생과의 가치관적 대립에서 위생이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남녀간의 애정문제가 중세적 관습의 틀 속으로 수용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남녀의 일탈적인 행위에 의한 결연이 아니라 두 가문의 관습적인 通婚에 의한 결합일 때 더 이상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위생에게 제기되었던 문제의 원인은 아직 미해결인 채로 남겨져 있으며 언제든지 갈등의 원인으로 재등장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부모의 주선으로 재합하게 됨으로써 잠시 작품의 이면에 잠복되었던 가치지향의 문제는 壬辰倭亂이라는 전란을 맞아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도 남주인공의 애정지속의 의지는 그 반대쪽에 있는 중세적 가치관에 의해 심각한 시련을 겪게된다. 여기서는 소속방이 그러한 가치를 전형으로 보여주는 인물로 묘사된다.

침은 듣건대, 남자가 세상에 나서 붉은 활과 흰말을 타고, 말가죽에 싸여 죽어 돌아올 뜻은 조금도 없고, 鐵騎牙長으로 마침내는 燕의 諸侯에 봉해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四海의 군센 군대를 발하여, 변방 한 모서리의 흉악한 무리를 섬멸코자 하니 산을 누르는 기세가 있을 뿐, 흠이 무너질 근심은 없나이다. 기특한 공을 도모코자 하신다면 바로 이 때일 것입니다. 어찌 우월한 儒者가 되어 끝내 西窓만을 지킬 것입니까? 하물며 嚴親께서 변방 밖에서, 멀리 採薇의 근심을 안고 계시는데, 자식이 하늘 가에서 陟岵의 슬픔을 어찌 견디겠습니까? 서둘러 돌아가시는 길을 여시어, 아버지의 뜻을 지체하지 마옵소서.

(妾聞 男子生於世彤弓白馬 少無馬革之志 鐵騎牙璋 終封燕頤之侯 荆今發四海之勁兵 殲一隅之兇徒 有山壓之世 無土崩之患 欲圖奇勳 正當此時 豈作迂儒 終守書窓乎 況嚴親塞外 遠抱採薇之愁 小子天涯 何忍陟岵之悲 逆啓歸程 毋稽親旨)

소속방의 이런 권면은 역시 당시 문사가 취할 수 있는 보편적인 處世의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남아가 공명을 이루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당시의 가치체제였다. 그 가치를 더욱 움직일 수 없는 완고한 상황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본 작품에서는 남주인공의 부친이 전장에 나가 그를 부르는 것으로 하였다. 여기서도 위생의 애정행위의 지속의지는 그러한 보편사회의 요구를 부정하거나 극복할만큼 가치 우위에 놓이지 못하였다. 결국 출

전하게 되고 소속방과는 다시 이별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작품의 전개부는 위생의 애정지속 의지에 대해, 위생과 관련을 맺는 인물로 구체화되는 가치관적 간섭이라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작품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남녀주인공간의 이별은 위생의 의지가 보편사회의 간섭보다 가치우위에 있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결과이다.

작품의 서두부에서의 방임적 승유는 사대부의 文遊行爲로 당대 사회의 가치관적 범주 내에서도 용인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주인공 의지가 남녀 애정이라는 당대 사회의 가치관적 범주 밖으로까지 이탈할 때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제재에 순응하여 규범적 관례에 따라 소속방과 재합하게 되었을 때는 결국 처음의 승유행위라는 일탈의지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보편사회의 사회적 요구에 묶겨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란이 발생한 후의 소속방의 출전권유에 일언의 반론도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이유에 기인한다.

③ 不可抗力的 世界の 橫暴와 悲劇

위생의 출전은 공명입신의 성취를 위한 자기의지의 결과는 아니다. 주인공은 이미 보편사회의 가치에 매여 있는 이상 여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이다. 처음의 이별은 보편사회로 회귀하면 재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의 이별은 주인공이 보편사회의 가치로 회귀할 때 더욱 조장되는 결과를 빚는다. 그렇다고 전장에 나가지 않는 것 역시 소속방이 제기한 그 사회 문사로서의 처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더욱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개연성은 분명해진다. 말하자면 두번째의 이별을 조장하게 된 전란은 주인공에게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세계의 횡포인 셈이다. 주인공의 죽음은 애정을 이어가려는 주인공의 의지가 세계의 횡포 앞에 좌절된 것이지만은 죽음으로 해서 그 의지가 소설적 영역 속에서 타당성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본 작품은 주인공 위생의 애정행위가 세계의 간섭에 직면하면서 위기를 맞게 되나 세계의 요구에 순응함으로써 그 위기가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순응으로 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희생이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은 본 작품은 주인공의 애정행위가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속되거나 좌절되며 회복할 수

없는 파탄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문제가 구성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시 본 작품의 작가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미 보았듯이 <위경천전>은 주인공의 일탈적 의지가 보편사회와의 가치와 대립됨으로써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문제가 핵심이 되었다. 가치관의 문제는 <주생전>에서도 볼 수 있었다. 즉 <주생전>에서는 관습세계와 거기에서의 일탈의지가 상호 복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작중 주인공의 심리적 반응으로 표현되었다. 단지 <주생전>에서는 주인공의 심리적인 이중성이 <위경천전>에서는 남주인공과 관계를 맺는 다른 작중인물이 사회적 가치의 전형으로 성격화되면서 주인공과 대립되는 형국으로 펼쳐진다. 이런 구성상의 특징들은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와 연관시켜 면밀히 검토할 때 얻을 수 있는 결론이다. 말하자면 <주생전>과 <위경천전>은 비록 특징적인 의미를 지닌 별개의 작품이면서 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구성상의 동질성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위경천전>의 작가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主題具現의 樣式上 限界

본 작품은 傳奇小說의 양식적 특징¹⁴⁾을 대체로 俱有하고 있다. 작가는 이미 마련된 양식적 관행에 작가가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던 당대인의 처세론적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남녀간의 지고지순한 애정을 문제삼고 있으면서도 여가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러한 애정지향이 당대 사회의 보편적 관념과 어떤 교섭관계를 이루며 의미를 갖는가 하는 데까지 주제를 끌고 가려하였다. 그러나 애정모티프 위주의 전기소설의 양식적 틀 속에 이런 문

14) 傳奇小說의 개념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상당히 차이가 난다. 대개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즉, 傳奇性을 띤 작품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설의 경우는 많은 경우 그러한 전기성을 띠고 있어 전기성 자체가 양식적 분류기준이 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소설은 唐 傳奇의 양식적 특징에 준용되는 작품군으로 文士에 의해 창작되어 典雅한 文體로 이루어지고 작가의 낭만적 지향의지가 두드러지는 작품을 말한다. 鄭學城教授가 전기소설의 양식적 성격을 정리한 바 있다(鄭學城, 傳奇小說의 問題, 《韓國文學研究入門》, 黃汎江 等編, 지식산업사, 1988, pp.253~257).

제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

우선 부정적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逸脫의 勝遊行爲가 愛情과 동일한 가치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의문부터 제기된다. 沒歷史的 現實逸脫의 放任의 반대 쪽에는 현실에 참여하여 공명을 세우고 가문을 창달하여 이름을 세우는 일이 자리한다. 韋生과 張生의 가치관 차이는 이런 데 기인한다. 그런데 작품에서는 위생의 일탈적 승유가 애정행위로 이어짐으로써 애정이 위생의 승유태도와 같은 범주로 의미를 갖게 되면서 현실관여의 처세관과 대립되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물론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애정지향과 일탈적 勝遊行爲는 동일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공명입신의 자기실현과 애정지향이 서로 대립적인 가치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일탈적 방임의 경우 사회적인 모순이라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전형성을 갖춘 문제의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위생의 방임은 일면 문사의 은둔자적 행위와 같은 뚜렷한 역사적 사회적 기반을 지니고 있었고 현실참여와 동일한 무게로 자기실현의 가치로서 의미를 부여받고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 자기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애정지향은 공명입신과 대립적인 가치로 의미를 부여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 점이 서두부 승유시에 보였던 문제의식이 구성전체에 일관되게 제기되지 못한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것은 애정위주의 전기소설에 자기실현이라는 문제까지 주제를 확대시키기에는 양식 자체가 가지는 한계가 분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면적으로는 이어지는 구성을 통해서 작중인물의 애정지향이 사회의 보편가치와 대립되는 양상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이상, 이러한 문제의식은 작품의 구성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전기소설의 일반적 기술관행 위에 敎述로 끼어들고 말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위생의 일차 이별과 그 해소과정에서 이를 살펴보자. 위생의 일차 이별은 장생과 위생간의 가치관적 대립에서 비롯되었고 부모의 주선으로 이별의 원인이 제거됨으로써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런데 <위경천전>의 이 대목은 전체 구성의 인과적인 의미관계로 볼 때 다소 석연치 않다. 즉 위생이 처음 직면했던 것은 가치관적 지향이라는 심각한 세계관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의 해결과정은 주인공의 애정행위가 당대 사회의 통념에서 용인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윤리적인 문제로 회석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작품의 내용으로 보아서 위생의 상사득병은 장

생의 행위로 인한 소속방과의 물리적 離隔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성상의 인과성을 고려할 때 위생의 상사득병은 이미 장생이 제기한 문제의 중심에서 제기되어야 했다. 애정을 지속시키려는 위생의 의지에 반하여 才氣出衆한 文士 위생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치에 대한 대립이 작품의 구성상 動力이 되어야 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모의 주선에 의한 혼인이라는 원만한 문제해결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대목은 <이생규장전>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문제의 발단은 달랐으나 그 해결의 방식에 있어서는 <李生窺牆傳>과 본 작품이 서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작가의 새로운 시도가 전기소설의 관행적 기술태도로 해서 제약을 받았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2차적 이별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으로 발견된다. 소속방의 위생에 대한 출전권유와 또 위생의 여기에 대한 순응으로 해서 그 이후의 결과는 위경천의 처세에 따라 변할 수도 있었다. 즉 소속방이 기대한 것처럼 위경천의 공명입신을 위한 영웅행위까지 상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전기소설에서 대개 이차적 이별의 원인이 되는 전란은 한 개인이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생규장전>이나 <취취전> <만복사저포기>, 또 <주생전>까지도 전란은 비극의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제시된다. 위생이 막상 전란에 응해서는 애정 일방도의 자기의지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앞서 소속방의 발언으로 해서 기대할 수 있었던 처세의 여러 가능성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이 역시도 이상과 같은 전기소설의 일반관행으로 결말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처음 제기한 문제의식이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란은 전기소설 속의 서사적 자아에 대해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작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생산하고 있음으로 해서 공명입신과 같은 다른 쪽의 가능성을 미리 봉쇄해 버린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이 본 작품에 대해 구성상의 완결성이 주생전보다 못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林箕澤教授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 시대에 복잡하게 전개된 현실 상황, 또 그로 인한 정치사회적 변화와 인간 자신의 내적·외적 파동을 전기소설이라는 고답적 폐쇄적 양식으로 포착하는 데서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⁵⁾ 석주는 아직

15) 林箕澤, 위의 책, p. 13.

전기소설의 시대에 전기소설의 양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까지 수용하려 하다보니 구성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작가의 創意的이고 試圖的인 작가정신의 결과로서 반드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5. 作家意識

앞에서 본 작품의 구성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작가의 세계관을 비롯한 작가정신이 작품 속에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이미 前章에서 논했던 석주가 지녔던 정신세계의 趨向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 전기소설에는 작가의 낭만적 초월의식이 반영된다는 일반적 해석이 가능하다. 〈위경천전〉 역시 이런 각도에서 이해될 수 있다. 鄭珉教授는, 이러한 남녀간의 사랑이야기는 절망적이고 참담한 현실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한다고 하고, 단조로운 현실 생활에서 일찌기 경험해 보지 못한 낭만적 작중세계로 몰입함으로써, 잠시나마 현실의 갈등과 불만을 잊고 일상생활의 긴장이 이완되는 代價的 체험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⁶⁾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전기소설의 일반양식적 특징 속에서는 타당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석주소설의 개성적인 창의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이미 〈주생전〉에서도 보았듯이 석주는 그의 소설을 통하여 세계 내에서 겪는 자신의 심리적 굴절양상을 투사한 바 있고, 〈위경천전〉 역시 전기소설의 단선적인 주제를 넘어서 보려는 의식적인 시도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석주의 내면의식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곳은 발단부의 勝遊場面이다. 여기에는 그의 세계인식과 역사관, 또 이로써 비롯되는 심리적 대응태도가 작품배경 및 작중인물의 성격을 통해 適實하게 표현되고 있다.

석주가 현실에 대해 가졌던 비판적 세계인식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상세히 논한 적이 있다.¹⁷⁾ 初試를 비롯해 覆試에도 장원했으나 一字誤書로 黜榜당했던 일과 또 20세를 전후해 노골화되었던 당쟁은 그 직접적 동기

16) 鄭珉, 위의 책, p. 309.

17) 文範斗, 石洲權韓文學의 研究, 嶺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3.

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석주는 그 인맥과 학맥이 서인에 속한다. 당시 정쟁에서 동인에 비해 상대적인 수세에 있었던 서인들은 登第하는 것조차 용이치 못했고, 뒤늦게 관직에 올랐다 하더라도 외직으로 전전하다가 黨禍에 연루되어 困憊 말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석주는 이런 정치적 혼란 중에 재능은 특출했으나 오히려 불우한 일생을 보냈던 주변 師友들의 경우를 얼마든지 목격하였다. 동서분당의 틈바구니에서 희생된 스승인 松江 鄭澈의 무상한 정치이력, 車天輅 李春英과 같은 교우들의 정치적 불우 등이 대표적 사례였다. 그가 비슷한 정치적 불우를 겪었던 역사적 인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석주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해는, 재능은 있으나 간배들의 작란으로 불우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왜곡되고 굴절된 삶의 모습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

君不見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楚國群陰蔽明月	楚나라의 간신들이 聖聰을 가리매
屈原懷石沈江湘	굴원이 돌을 안고 湘水에 빠졌음을
又不見	또 보지 못하였는가
漢廷諸公惡少年	漢나라 조정 여러 신하가 소년을 미워하여
賈誼去傳長沙王	賈誼가 長沙太傅가 되어 떠난 것을
鳳翔千仞竟焉往	봉황은 높이 날아 마침내 어디로 가며
蕙樹百畝空餘芳	난초를 백이랑 심었으나 공연히 향기만 날리네
有才不必用	재주가 있다고 반드시 쓰이지는 않고
有德不必彰	덕이 있다고 반드시 표창되지는 않네
李斯入關秦乃帝	李斯가 재상이 되니 秦이 霸者가 되고
孔明出廬漢終亡	諸葛亮이 움막에서 나왔으나 漢나라는 망했네
世間成敗本如此	세상의 成敗는 본래 이와 같은 것이니
力耶命耶誰主張	힘인가 命인가 누가 주장하는가
酈生舌下七十城	食其는 혀로 70여성을 차지했으나
不免身作鼎中烹	자신은 솥 속에 삶겨 죽음을 면치 못했네
淮陰戰勝攻必取	韓信은 싸우면 이기고 공격하면 취했으나
不免身死女兒手	자신은 여자의 손에 죽음을 면치 못했다

智巧不可恃
從古有如此

지혜와 기지는 믿을 바 못되는 것
옛부터 이와 같았다네¹⁸⁾

.....

석주가 가졌던 역사관의 진상은 世間成敗가 智巧와 正義의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다. 屈原과 賈誼같은 충신도 간배들의 모함으로 放逐되어 湖上을 맴돌았고 諸葛亮의 功能도 허무했으며 韓信과 酈食其의 智略에도 말년은 곤고로왔던 사실인식에 기인한다. 역사적 인물에 대해 가졌던 작가의 위와 같은 시각은 洞庭湖畔의 배경묘사와 함께 張生의 승유태도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장생은 옛사람의 유적이 깃든 이 곳에서 慷慨한 심회를 토로하고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동정호 주변에 맥맥히 흐르는 사적을 더듬고 있는 작품의 배경묘사는 역시 석주 자신의 위와 같은 역사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다음의 작품내용은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으로 기술된 동정호의 분위기로, 작가가 애초에 동정호를 작품배경으로 설정한 의도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아 楚나라는 구슬프고 쓸쓸한 땅이라. '蒼梧의 들판에서 巡狩를 그치시고 함께 늙어 가누나.' 라고 한 것은 두 妃의 원한 어린 눈물이 아니었던가. '離騷를 읊조리니 汨羅의 물결이 운다.' 고 한 것은 三閭大夫 屈原의 충혼이 아니었던가
(噫 楚國悲涼之地也 蒼梧巡斷 竹老三湘 此非二妃之冤泣耶 離騷吟罷 汨羅波鳴 此非三閭之忠魂耶)

앞서 보았듯이 석주가 지녔던 역사이해는 그가 현실을 보는 시각에서 유추된 것이다. 그 현실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일 때 석주가 취한 태도는 대개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상황을 강한 논조로 비판하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그 하나이고, 현실을 의식적으로 망각하고 자기만의 절대자유의 경지를 탐닉하고자 하는 경우가 다른 하나였다. 위에 인용한 시에 이어지는 다음 내용을 보자.

去子驕氣與多欲
不用多言與多力

그대는 교만과 욕심을 버려라
다함과 다력은 쓸 데 없는 것

18) 《石洲集》卷之二, 〈天下蒼蒼醉中走筆〉

驕則不自保
欲則不知止
言終裂蘇秦
力不救任鄙
莫愛采石江上月
莫愛灞陵橋上雪
蹇驢覓句只冷淡
長鯨登天終恍惚
不如樹杓無何鄉
游居寢臥于其傍
六合爲室
萬物爲糧
星辰爲佩
雲月爲裳
塞兌閉門
與道翱翔
下躋黃泉
上登太黃
男兒到此
卽是大休歇
何用在世長整蕘

교만한 즉 몸을 보전할 수 없고
욕심된 즉 그칠 줄을 모른다
말은 마침내 蘇秦을 찢어 죽이고
힘은 任鄙를 구하지 못했다
채석강 위 달을 사람치 말고
파릉교 위 눈을 좋아하지 마라
나귀타고 쇠구 찾으나 쓸쓸도 하고
고래타고 등천하나 종래 황량토다
神仙之境에 매자나무 심고
그 곁에 놀며 누워 잠만 갇지 못하리라
사방천지를 집으로 삼고
만물을 양식으로 삼고
星辰으로佩를 띠고
雲月로 옷을 지어 입고
몸을 피하여 문을 닫고
도와 더불어 높이 날고
아래로 황천을 밟고
위로 太黃에 오른다
남아가 이에 이르면
즉 이것이 크게 쉬는 것이니
어찌 세상에서 오래 마음을 쓰겠는가¹⁹⁾

위의 시에서 석주가 道家의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의도를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앞 부분에 기술된 역사상황은 현실의 정치적 부조리를 드러내기 위해 引喻의 修辭로 빌어왔다. 이 현실에 발을 들였다는 濟世의 뜻도 아랑곳없이 일신의 命運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다. 현실과 동화될 수 없다는 이러한 상대적 일탈감이 그로 하여금 曠大無邊의 정신적 유희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모순인식에서 비롯된 그의 유희의식은 다음의 시에서 보다 분명히 볼 수 있다.

19) 위의 책, 같은 곳.

我愛林子定
其人王佐才
奇韜握龍虎
俊辯騰風雷
鬱鬱抱奇器
功名安在哉
鳴琴咽流水
古劍生秋苔
我亦落拓者
半世趨風埃
欲陳濟時策
天門何崔嵬
茫然撫疇昔
壯志中道摧
托迹屠市中
燕歌空自哀
三花若未落
與子歸去來
雙騎紫麟去
浩蕩遊蓬萊

내林子定을 사랑하니
왕업 도울 재주 지녔도다
기이한 계략은 龍虎를 잡아채고
뛰어난 언변은 바람과 뇌성에 오르네
슬프다! 기이한 재주 지니고서도
공명은 어디에 있는가
거문고 우니 흐르는 물에 목매고
옛 칼에는 가을이끼 돋았네
내 역시 불우한 자
반평생 먼지바람 쫓고
세상 건질 책략을 베풀려 하였으나
조정의 문은 어찌 그리 높던가
아득히 옛 일을 생각하니
장대한 뜻은 중도에서 꺾이고
저자에 몸을 의탁했으니
즐기는 노래에 공연히 슬프도다
三花는 아직 지지 않았으니
그대와 함께 천원으로 가
紫麟을 함께 타고서
호탕히 蓬萊에서 놀아나 보세²⁰⁾

여기서 특별히 장생과 위생의 승유태도를 대립적으로 설정하여 위생의 飲酒自若의 沒歷史의 승유태도로 작품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장생의 태도에 대해서 굳이 한낱의 즐거움을 낭비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위생의 태도는 현실에 대한 방임적 태도라는 작가의 또 다른 의식세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忠節孤魂의 史蹟이 역력한 長沙에서 굳이 위생으로 하여금 飲酒放歌의 자유로 지향하게끔 한 의도는 바로 석주의 위와 같은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서 비롯된 의식적인 무관심을 보다 명백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승유시의 두 인물의 형상은 작가의 철저한 현실인식에서 오는 비판적 세계관과, 그로 인한 방

20) 《石洲集》卷之一, 〈贈林子定〉

만한 일탈의지가 구체화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보겠다.

작품은 위생의 일탈적 승유행위가 애정추구로 이어지면서 전개된다. 그러나 주인공의 애정행위는 곧 기존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때 기존의 관념이란 당대 청년문사의 처세와 관련된 것으로, 仕路에 들어 입신하여 뜻을 이룬 후 가문을 창달하고 이름을 만세에 남기는 것이다. 승유 이후는 이러한 사회의 보편적 가치의 요구에 대해 애정이라는 전혀 별개의 가치를 고집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여러 곡절이 작품구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면 석주가 양식상의 무리를 범해가면서까지 가치관의 대립구조로 작품의 구성을 이어가려는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석주가 이 시기에 자기실현의 문제에 상당히 집착하고 있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석주의 현실에 대한 痛貫과 일탈의지는 실상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과 뚜렷한 연결고리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대 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는 공명입신과 같은 자기실현의 가능성을 전혀 부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석주가 부정했던 것은 당대사회의 가치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그러한 가치의 실현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모순된 현실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석주가 초년에 지냈던 濟世壯志는 이미 두루 밝혀진 바 있다.²¹⁾ 伊尹과 呂尙의 經世, 諸葛亮의 豪氣는 그의 미래상이었다. 말하자면 立身揚名, 濟世安民의 문사로서의 가치를 내세우는 장생의 주장이나, 조선에 출전하여 彤弓白馬 鐵騎牙璋으로 奇勳을 세우라고 하는 소속방의 권면은 석주에게 있어서 부조리한 현실때문에 실현 불가능했던 또 하나의 기대가치이다. 이들 장생과 소속방이 제시하는 인간상은 실제로 석주가 부정적 현실로 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라 볼 수 있다. 이 점은 그가 초년에 지냈던 입신의 뜻이 좌절된 데 대해 후년에 이르러서도 상당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었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三尺太阿劍

百年梁甫吟

逢迎多白眼

遊說少黃金

三尺 太阿劍에

백년 梁甫吟이라

많은 질투 만나니

돌아다녀도 부귀는 적도다

21) 文範斗, 위의 책, pp.17~18.

風塵萬事一揮淚 풍진만사에 눈물뿌리니
誰識男兒方寸心 남아 방촌심을 누가 알겠는가²²⁾

이러한 석주의 상실된 자아가 작품 속의 성격으로 구체화된 인물이 金生이다. 金生의 등장 역시 구성상 인과성의 측면에서 필연성을 결여하고 있을 정도로 돌출적인 것으로, 작가의 여기에 대한 자기주장의 정도를 짐작케 하는 것이기도 하다. 金生은 韋生이 병원에서 병고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의 부채에다 시를 써는데, 호기로운 기상을 보여주고 있어 어쩌면 석주가 지냈던 初年壯志의 일면을 보는 듯하다.

白馬驕嘶跨玉鞍 히힝 우는 백마의 옥안장에 올라타
龍刀何日斬樓蘭 龍刀로 어느 때 오랑캐를 베어볼꼬
秋風萬里關山外 머나먼 관산 밖에는 가을바람 불고
吹笛江南片月寒 강남 땅 피리소리에 조각달만 차누나

〈주생전〉에서 석주가 겪는 이 가치관적 이중성은 주생에 대한 서술자의 발언에서 잘 드러났다. 주생이라는 인물의 성격은 두 세계의 어느 쪽에서도 절대적인 평정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방외자로서 떠도는 나그네같은 존재로 자신의 삶을 투영하였다. 〈위경천전〉에서는 주생전에서 주생의 한 인물에게 복합적으로 설정되었던 석주의 가치관적 이중성이 위생과 위생에 대립되는 인물로 분화되어 설정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6. 小說史的 意義

남녀의 애정담은 《殊異傳》逸文에서 소설의 형태를 띠게 되었고 《금오신화》에서 그 정점을 이루었으며 《企齋記異》까지 이어지고 있다. 석주의 소설은 前代의 양식적 관행에 비교적 충실하면서 그 흐름을 지속시킨 공로가 인정된다. 이 소설양식은 낭만성의 추구라는 작가의 창작의도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생명력을 지닐 수 있었다.

22) 《石洲集》卷之二, 〈醉吟〉

그러나 <위경천전>은 동시에 소설양식의 새로운 변모 가능성을 예고해 준다. 이 시점에서 작가는 애정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제기의 가능성을 소설양식 속에서 탐색했다고 볼 수 있다. 석주가 애정담을 작품의 주된 모티프로 차용하면서 현실적 처세나 세계 내에서의 존재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표방하려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소설을 통해서 한 개인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나 사회적 가치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다면 人鬼交歡의 冥婚小說과 같은 형태로는 이를 충분히 담아내기가 어려웠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런 문제를 비현실적 신비담에 실어 표현한다면 주제의 심각성이 상당히 손상받을 염려가 있었다. <주생전>이나 <위경천전>이 傳奇性을 배제하고 현실적 인과논리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도록 구성된 것은 작가의 이런 배려에 기인한다.

애정문제가 사회적 의식구조의 틀 속에서 제기되는 의미망 속에 포착되어 리얼리티를 드러내게 된 점도 주목할만하다. 비록 <위경천전>의 대립관계가 사회적 전형성을 뒤흔들 만큼 보편성을 지닌 것은 아니었으나 애정의 추구가 현실사회에서 요구되는 저항세력과 갈등을 빚어 내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위경천전>에서 볼 수 있었던 애정지향의 의지와 이를 사실상 통제하고 간섭하는 세계가 본격적인 대립의 양상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라는 점이다. <雲英傳>은 이런 점에서 <위경천전>의 이런 단초가 보다 구체화된 경우일 것이다. <운영전>의 애정갈등은 비록 특수한 공간에서 宮女라는 특수계층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으나, 애정문제가 사회의 현존적이고 실제적인 저항세력과 대립적인 위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 저항세력은 물론 나중에는 權臣과 같은 사회적 보편성을 띤 인물로 환치되어 보다 전형적인 갈등관계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위경천전>이 우리 소설사에 자리하는 위치는 전기소설의 양식적 전형을 이어받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소설양식을 예고하고 마련했다는 점에서 뚜렷하다. 동시에 前代의 <금오신화>나 <기재기이>, 그리고 林悌의 소설은 물론이고, <주생전>을 비롯하여 <崔陟傳>이나 허균의 <南宮先生傳>과 함께 소설양식을 이 시대의 뚜렷한 한 문학양식으로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7. 結 言

석주는 詩文에 걸쳐서 독특한 개성을 나타낸 발군의 작가였다. 수사상 기교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외적 현실세계와 내적 심리세계를 적실하게 표현해 내는 데에서부터 그의 문학적 재능과 작가정신의 발달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위경천전〉은 석주가 지냈던 세계관과 문학정신을 이해할 때, 그 이해의 범주 속에 충분히 부합되고 있다. 이 작품이 석주에 의해 지어졌을 것이라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논거는 여기에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위경천전〉은 傳奇小說의 양식적 전통을 이으면서 또 소설문학에 대한 작가의 기대치의 변화로 해서 새로운 양식상의 모색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본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은 남녀간의 애정성취의 과정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애정과 관련된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다시 역사관의 문제, 현실사회에서의 처세론적 문제 등이 交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 작품의 주제적 의도가 양식상의 수용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결국 구성상의 긴밀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구성상의 문제점이 본 작품이 석주의 작품이 아니라는 논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기왕의 논의에서는 천재적인 작가 석주가 이런 류의 작품을 쓸 수 있겠는가 하지마는 오히려 그의 試圖적이고 개성적인 실험정신이 기존의 문학양식의 변모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

전기소설은 기본적으로 현실에서의 불화의식을 낭만적으로 승화시키려는 작가의 기대욕구가 개입된다. 그러나 본 작품은 구성상의 특징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석주의 세계관적 지향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우선 작품 서두부에서는 석주가 부정적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비관주의적 세계관이 장생과 위생의 대립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 이 대립의 귀결로 처리되고 있는 물역사적 방입과 애정추구는, 현실에서의 불화로 해서 지향하게 되었던 自適과 초탈이라는 석주의 정신적 일 영역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전개부에서 주인공 위생의 애정행위가 당대 사회의 보편적 가치체계와 대립적인 구도를 이루면서 지속되도록 한 설정은 석주의 내면세계의 또 다른 반영이다. 즉 중세의 문인채사의 석주는 실제로 공명입신이라는 중세적 가치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의 실현을

막고 있었던 모순된 현실의 정치상황에 대해 부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두 가치의 제시는 당시 석주가 지니고 있었던 자기실현의 두 가능성이 허구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경천전〉은 석주의 다른 소설 〈주생전〉과 함께 소설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작품임에는 틀림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